

2017년 5월 19일, 성산을 온평리 고유을 씨 덕, 송정희 조사.
 고유을(여, 1924년생, 성산을 온평리)

- 줄거리: 하루에 7일치 음식을 다 먹는 사람이 한라산에 가서 집 한 채 할 나무를 끌고 내려오다 보니 문밖벙디에 돌이 모두 다 쓸려 해변까지 내려왔다고 한다. 지금은 문밖벙디에 돌이 없다고 한다.

[제보자] 일뤼, 일뤼칠, 하루에 다 먹어그네 한라산 가그네 집 훈그르치 다 헤그네 그거 다 엮언 그거 다 꽃영 오명, 저 한라산으로 이레 꽃언 오라네, 이 해변??장 꽃언 오라부나네 문밖벙디 돌 다 꽃어 오라부난, 문밖벙디가 돌이 엇다 헤여이.

그거, 다 그 집 훈그르치 헤여네 엮언, 지렁지렁 어깨죽지에 메연 꽃어온 거라. 경 헤연 헤깅??장 꽃어 오라부나네, 그 문밖벙디 돌 알려레 축항더레 다 노력가부난, 이제 갓곳이가 성 담 다우고 무시거 허고, 그추룩 허게시리 노력가부난 꽃언 그디 오랏젠 그런 걸 곤는 거는, 그건 들엇인디.

그것도 무신, 잠깐 들엇주, 어린 때부터 어떻게 해서 큰 것도 몰르고, 그런 건 알아. 문밖벙디가 돌이 엇덴. 성문으로 이레 노력온디.

문밖벙디 돌 엇인 이유는, 한라산에 간에, 고지 간에 남 베여네, 집 훈그르칠 다 엮언에 일뤼 먹을 걸, 훈 사름이 훈 번에 다 먹언 간, 그 낭을 그찬 그추룩 행 오랏젠. 경 허명 문밖벙디 돌 문밖 썰어 오라부난 이디 오란 성창은 돌이 엇덴 허주, 문밖벙디.

- 핵심어 : 문밖벙디, 돌, 한라산, 남, 일뤼치, 하루